

드론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전진기지 기대

전주시, 드론메이커 육성공간 전주드론제작소 '윙윙스테이션' 개소식 가져

전주시민 누구나 드론 관련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직접 제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드론 제작소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지난 16일 전주첨단벤처단지 본부동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신재경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노상훈 (사)캠틱종합기술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드론제작소 '윙윙스테이션'의 개소식을 가졌다.

'윙윙스테이션'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한 '2022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공모에 선정돼 구축된 공간으로, 시와 캠틱종합기술원은 최대 9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드론을 주제로 한 특화랩을 조성·운영하게 된다. 유희공간이던 전주첨단벤처단지 본부동을 개조해 마련된 윙윙스테이션에는 △교육·실습공간 △회의실 △



전주시는 지난 16일 전주첨단벤처단지 본부동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신재경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노상훈 (사)캠틱종합기술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드론제작소 '윙윙스테이션'의 개소식을 가졌다.

상담실 △휴게실 등 드론 창작자(메이커)를 위한 공간을 갖췄다. 또, 드론 관련 교육에 필요한 △3D 프린터·스캐너 △제품 모델링 소프트웨어 등도

도입했다.

시는 향후 이곳을 단순히 드론 창작자를 육성하는 공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드론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하는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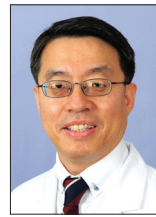
이를 위해 시는 윙윙스테이션을 통해 우수 메이커를 발굴한 후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의 첨단 드론장비를 활용한 아이디어 제품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련 기업·기관과 연계해 드론산업의 든든한 뿌리가 될 창업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최우선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드론 메이커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창업·혁신·성장으로 이어지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강한 경제 전주를 이끌어 나갈 대표 미래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병원 이식 교수, 복지부 장관 표창

생명나눔 문화 확산 기여 공로 인정받아



전북대학교 병원 이식내과 교수(사진)가 '제5회 생명나눔 주간'을 기념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교수는 "장기기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구하기까지 생명나눔을 위해 큰 결정을 내려주신 가족과 낯선 사람이 이어지는 기증자 관리와 이식수술 임무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해준 의료진, 병원의 지원과 관심 등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뇌사 추정자 발굴과 기증자 관리를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 및 이식의 발전이 이뤄지고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뜻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한국장기기증 조직원과 뇌사장기기증자 관리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뇌사 추정자 발굴 및 기증자 관리를 통해 장기기증의 활성화 및 이식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뉴스

메카노 바이오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 활성화 세미나 개최

전주시·전북대, 중재의료기기 전문가·대기업 관계자 발제 참여 방안 제언·논의

전주시와 전북대학교가 미래먹거리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 의료기기 전문가, 기업대표들과 머리를 맞췄다.

시와 전북대는 지난 16일 라마다 전주호텔에서 메카노 바이오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 관계자와 국내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카노 바이오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 활성화 세미나'를 가졌다.

메카노 바이오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00억 원 등 2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메카노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의 안정성·유효성 평가 등 실증을 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실증센터는 몸에 매식되는 3·4등급 의료기기의 실증을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향후 기구축된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 융합 연구센터와 연계해 차세대 융복합 혁신 중재의료기기 실증기반 선점 및 제품 상용화, 국내외 시장 선점의 기틀을 다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2011년 '미국 올해의 젊은과학자 35인'에 선정된 김대형 서울대 교수를 비롯, 메카노 바이오 학문 분야 국내 권위자인 김동



휘 고려대 교수, 서울아산병원 스텐트 코어랩을 책임지고 있는 박정훈 교수, 최병훈 LG전자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부장이 발제를 통해 디지털 의료기기 사업화 동향 등을 발표했다. 발제자들은 또 현재 전주시와 전북대가 주력하고 있는 중재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전문의적 제언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는 플라스 바이오와 에이블 등 전북지역 기업과 (주)IDM, (주)에스아이메드, (주)시브이 바이오 등 국내 의료기기 개발기업 등도 참여해 실증센터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 현장점검

전주시의회는 행정위원회(위원장 정삼길)가 최근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부지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부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인형극장은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시비 19억원 가량을 들여 2024년까지 건립 계획이다. 또 종합경기장 부지는 주경기장과 야구장을 대체 부지로 옮기고, 현재 터는 MICE산업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방문에서 관계 공무원의 진행 상황 브리핑을 받고,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주문했다.

정삼길 행정위원장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현안사업들인 만큼 꼼꼼히 현장을 확인해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위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는 지난 6월의 해제 요청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전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9월 현재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15일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최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거래량 급감 △매매가격 상승률 하락 전환 △미분양 발생 등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고 판단,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게 됐다.

특히 최근 3개월(2022년 6~8월) 월평균 매매거래량은 578건으로 직전 3개월(2022년 3~5월) 월평균 매매거래

량 1062건과 비교해 4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도심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낙폭이 확대되는 등 지난 8월 마지막주 이후 매매가격상승률도 하락 전환되며 주택 매수심리 위축이 가속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동주택 신규 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A아파트의 경우 64세대 중 43세대 미계약이 발생했고, 평형별 청약 미달이 나타나는 등 청약시장도 위축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이라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국토부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한 차례 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